

부동액은 물과 섞어서, 워셔액은 원액 그대로 사용

겨울철 차량 관리 요령

겨울철은 특히 차량관리와 안전 운전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차량 손상은 물론, 탑승자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시동걸기부터 빙판길 운전법까지, 겨울철 차량 운행의 팁과 차량 관리법을 알아본다.

◇시동 배터리 점검은 기본=겨울에 발생하는 자동차의 가장 큰 애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한파가 몰아닥치면 배터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래된 배터리이거나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면 영하에 배터리 출력 용량이 낮아져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

시동이 안 걸린다고 키를 무리하게 계속 돌리면 그나마 남아 있는 배터리의 전기가 모두 방전된다.

배터리를 교체한 지 2년이 넘은 상태에서 잘 살펴보지 않았다면 시동 거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평소 배터리 방전이 자주 일어난다면 발전기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정비업체에 들러 배터리 전압을 체크하고 전압이 낮으면 새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 배터리 뒷부분 등근 유리창 속 색깔이 녹색이면 정상, 검은색이면 용량 부족, 투명한 색이면 방전을 의미한다.

◇부동액은 물과 섞어 쓰세요=부동액을 교환하거나 보충할 때 통상 부동액 원액과 수돗물을 절반씩 섞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욕심을 내서 부동액 원액만 주입하는 운전자들도 있는데, 결빙온도가 낮아지는 효과만을 생각한 실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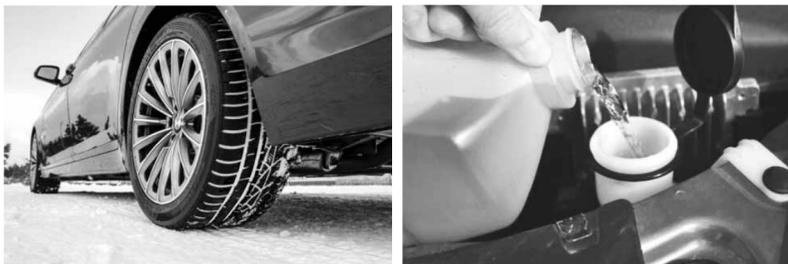
원액만 주입할 경우 부동액 농도가 너무 짙어져 냉각수 순환을 방해하게 돼 오히려 엔진과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설명이다.

부동액은 보통 초록색으로, 다른 색으로 변색했다면 기능이 다 한 것으로 보고 새 부동액으로 교환하는 게 좋다. 좀 더 정확히 하려면 정비소에서 부동액 농도를 측정하고 방점을 확인하길 권한다. 방점이 영하 30도 이하라면 정상이다.

반대로 워셔액은 원액 그대로 사용해야 결빙을 방지할 수 있다. 여름을 대비한다면, 가끔은 겨울철에도 에어건을 사용해 냉매를 순환시킨다. 이는 밀폐용 고무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로, 냉매의 불필요한 유출을 막을 수 있다.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타이어 측면에 기록돼 있는 최대 공기압은 적정 공기압이 아니다. 적정 공기압은 최대 공기압의 90% 정도로, 아주 무거운 짐을 싣

배터리 교체 2년 넘으면 정비업체 들러 전압 체크 온도와 밀접 타이어 공기압 동절기엔 90%가 적정



겨울철 눈길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배터리 점검은 필수이며 부동액을 확인하고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또 빙판길 등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활용해 운전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진 아래는 타이어와 부동액 점검.

지 않는 경우라면 최대 공기압까지 넣지 않는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은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에는 타이어 팽창압력이 약해진다. 여름철에 공기압을 맞춰놨다면, 다시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또 눈길 빙판길에서 엔진브레이크 활용해 운전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 2단에서

출발하는 게 기본이다.

요즘은 '스노우' 기능이 별도로 탑재돼 있는 차들도 있기는 하지만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미끄러지기 쉽상이다. 이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 충분히 감속한 후 브레이크를 여러번 나눠 밟으면 좋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차유리 성에 제거 팁

밤새 내린 눈이나 갑작스런 한파로 앞 유리가 눈이나 성에로 잔뜩 끼이면 자각하기 일쑤다. 성에가 보이면 플라스틱이나 금속 도구로 긁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에 흠집이 생겨 유리를 교체해야 하거나 와이퍼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얼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퍼를 작동하면 모터가 파손될 수도 있다. 성에를 온전하게 제

금속 도구로 긁지 말고 히터 송풍구 유리쪽 틀어 얼음 녹여라

거기 위해서 눈을 대강 훑친 뒤 차 히터를 틀어 송풍구를 유리쪽으로 향하게 해 얼음을 어느 정도 녹인 뒤 긁어내는 게 낫다.

주전자 등으로 물을 끓인 뒤 붓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만 더 낭비할 수 있다.

겨울에는 실내외 기온 차이로 김서림이 자주 발생하

므로 김서림 방지제를 차 안에 비치해두는 게 좋다. 김서림 방지제가 없을 때 김이 서렸다면 히터를 켜 상태에서 에어컨을 동시에 작동시키면 효과적이다. 평소 차 동차에 비누를 비치했다가 비눗물을 수건에 묻혀 유리에 바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E클래스 최상위 모델 더 뉴 E400 4매틱.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벤츠 10세대 '더 뉴 E400 4매틱'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0세대 '더 뉴 E클래스'의 최상위 모델 '더 뉴 E400 4매틱'을 출시했다.

더 뉴 E클래스의 8번째 라인업인 더 뉴 E400 4매틱은 벤츠의 V형 3리터 6기통 가솔린 엔진과 자동 9단 변속기를 적용해 최고 출력 333마력과 최대 토크 48.9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첨단 주행 보조와 안전 시스템을 결합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했고, 동급 세그먼트에서 유일하게 멀티-젯버 에어 서스펜션 방식의 에어 바디 컨트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충돌 시 안전벨트 내의 에어백이 팽창해 가슴의 충격을 흡수하는 뒷좌석 벨트백, 좌우 각 84개의 LED로 구성된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적용했다.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9800만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7년 자동차산업 전망

구분	2015		2016(추정)		2017(전망)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내수판매	1,842	10.6	1,800	-2.3	1,750	-2.8
- 국산차	1,558	7.8	1,542	-1.0	1,480	-4.0
- 수입차	284	29.3	258	-9.1	270	4.7
수출	2,974	-2.9	2,680	-9.9	2,690	0.4
(완성차 수출액)	(458)	-6.3	(413)	-9.8	(415)	0.5
생산	4,556	0.7	4,222	-7.3	4,170	-1.2

주) 수입차 국내판매는 신규등록 기준

자동차 내년 내수판매 2.8% 감소 175만대 예상

자동차협회 '자동차산업 전망'

수입차 늘고 수출 나아질 듯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이 올해보다 위축되는 가운데 수입차 점유율이 늘고 수출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지난 23일자로 발표한 '2017년 자동차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수 판매는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종료에 따른 저효과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민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한 175만대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내수에서 국산차는 전년 대비 4.0% 줄어든 148대를, 수입차는 신차 출시와 아우디·폭스바겐 판매 재개 등으로 전년 대비 4.7% 성장한 27만대를 예상했다.

이에 따라 수입차의 국내 점유율은 올해 14.3%(이상)에서 내년 15.4%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SUV 인기가 계속되면서 SUV를 제외한 나머지 차급은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고급 브랜드 출시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과 하반기 이후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 등 신흥시장의 경기 회복, FTA 관세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한 269만대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수출액도 올해 413억 달러에서 내년 415억 달러로 0.5%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는 세계 자동차 시장 성장률 둔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금리 인상, 유럽연합(EU) 지역 소비심리 악화, 완성차 업체의 해외생산 비중 증가 등을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역별로는 동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는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북미와 EU, 아시아는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국내 생산은 내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417만대를 전망했다.

세계 자동차 수주는 미국·유럽의 성장 둔화와 중국의 소형차 취득세 인하 종료, 인도 시장 성장, 러시아의 경기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961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급, 사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남평, 최고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에서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80만원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지하1층 지상4층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61개
- 법인체 인수 가능
- 동업 운영 하실분 환영
- 리모델링 중 (4억예상)
- 매매 - 협의
- 대출 - 8억 있음
- 감정가 - 현재 15억
- 주인직매 H.010-3605-5000